

# 전주정신 '대동 · 풍류 · 올곧음 · 창신' 선포

### 조상의 얼이 담긴 유구한 역사 전통 바탕 시민 자긍심 · 애향심 고취 · 발전 도모

전주의 전통문화와 창의적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꽃심 전주'가 선포됐다.

전주시는 9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시의장, 전주정신정립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비롯한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전주사민의 날 기념행사 및 전주정신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전주사민의 날 행사는 조상의 얼이 담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로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전주정신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지역자긍심 고취와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위해 23회의 전주정신정립회의와 학술대회, 자문회의, 확대회의 등을 반복하며 정립해온 전주정신을 공식 선포했다.

전주정신은 전주의 역사성과 고유성, 미래성을 상징하는 정신으로 전주정신정립위원회(위원장 이동희)는 전주의 대표정신을 '꽃심'으로 정했다.

또 이를 '한국의 꽃심, 전주'로 표현하고 '꽃심' 안에는 대동과 풍류 그리고 올곧음, 창신의 4개 정신이 담겨 있다고 정리했다.

전주시민들도 이날 전주정신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제 우리 전주는 전주의 대표정신인 '꽃심'과 꽃심을 이루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 등 4개 정신을 내외에 공식 천명한다"며 "전주정신에 따라 상생의 마음으로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삶의 여유와



9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58회 전주사민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전주사민의 날 수상자들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사민의 날은 평소 전주시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인 시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호열·교육·문화·공익·체육분야에 각 1명씩 수여한다.

멋을 잃지 않고 사람의 도리와 의로움을 추구에 전통을 토대로 창의적인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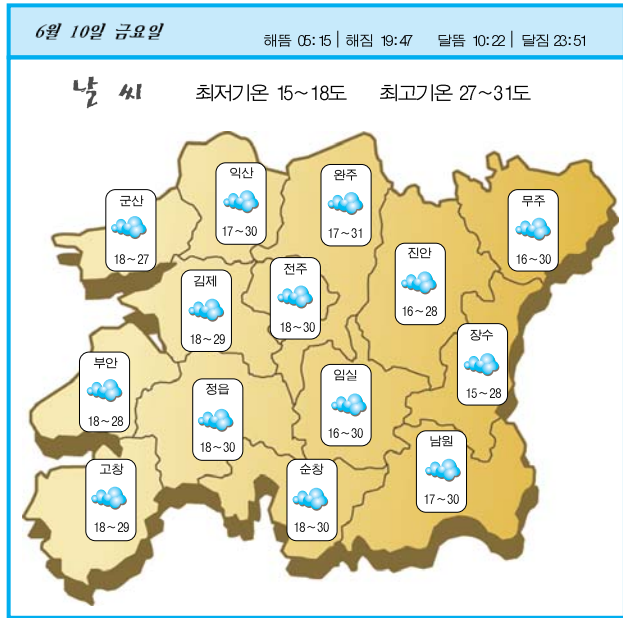
시는 이날 선포식 이후 각 부서별로 전주정신 확산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전주정신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라는 지리적 영토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정신적 영토인 전주정신 위에 품격 있

는 공동체를 이뤄내 높은 자부심과 넉넉한 전주인의 삶을 꽃피워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정신을 상징하는 '꽃심'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꿈꾸는 전주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정신"이라며 "전주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로서 시민 자긍심을 높여주고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해주는 전주만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부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전주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온 김귀덕(호열장), 김수연(교육장), 김경희(문화장), 배화순(공익장), 권순태(체육장) 등 전주사민의 날 수상자 5명과 강기욱, 강영이, 진우선, 최희숙, 황승일 등 모범시민상 수상자 5명 등 총 10명의 시민들에 대한 표창이 거행됐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농악 · 풍물연구소 발트3국과 학술 · 문화 교류

전북대학교 농악·풍물연구소(소장 김익두)가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학술·문화 교류에 나섰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최근 한국과 리투아니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현지에서 열린 한인 축제에서 호남 우도 정음 농악을 세 차례 공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인근 국가인 라트비아에서는 라트비아대학 한국학연구소 창립을 기념해 김익두 교수(국어국문학과)가 '한국의 대표적 전통공연으로

서 농악/풍물'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함께 호남우도 정음농악 공연을 펼쳤다. 이어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연구소 방문단은 모스크바 한인 사회의 현지 농악 전승자와 현황을 조사하는 학술활동도 병행해 이번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전북대는 라트비아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와 학술 및 문화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리투아니아 한인회와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민형기자

### 도교육청 결원 발생 13개 학교 교장 공모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교장 공모제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년퇴임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전체 51개 학교 중 13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추진한다. 대상 학교는 초등 10곳, 중등 2곳, 고등 1곳이며 임용예정일은 9월1일이다.

공모 학교는 조동초, ▲군산 내흥초, 월명초 ▲익산 용산초 ▲정음

수곡초 ▲남원 남원초, 덕과초, 산내초, 주생초 ▲장수 장계초 ▲임실 대리초, 중학초는 군산 화현중, 자양중, 고등학교는 완주 고산고가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해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도교육청 전국 첫 교육용 탈핵교재 개정판 배부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첫 교육용 탈핵교재 개정판을 내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지난해 발행한 교육용 탈핵 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의 개정판을 최근 발간, 도내 일선 학교에 배포 중이다.

현직 교사 등 전문가 4명이 집필한 이 개정본은 4x6 배판 120쪽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기존 자료에 수록된 핵발전소 관련 데이터를 수정하

고 부록 2개를 추가했다. 집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만든 교재는 탈핵 담론을 제도권 교육 안에서 최초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면서 "이번 개정본은 초·중·고의 오류와 비전 수치 등을 수정·보완해 학교 현장에서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도, 친환경소재 전문인력양성 사업 미취업자-기업 가교역 '톡톡'

### 교육 · 훈련 4개 과정 진행 올해 80여명 취업인원 양성

전북도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이 도내 미취업자와 기업간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기업 맞춤형 인력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4개 과정을 진행해 올해 80여명의 취업인원을 양성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고

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2015년까지 총 7개 기관이 32개 과정을 운영해 525명의 취업인원을 배출했다.

올해는 도가 전북자동차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예코융합실용연구원 등 3개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각 교육·훈련기관은 지난 4월부터

모집한 것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은 특수용접과정과 전기자동차 설비제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의 습득을 통해 산업현장기술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동차기술원은 뿌리분야 금형 및 생산기술 전문인력양성과정을 개설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금형부품설계 및 생산기술 분야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예코융합실용연구원은 자동차 내장재가공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해 자

동차 시트 및 섬유봉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청년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서 "이들이 전북도와 교육·훈련기관 간 인력양성 협업 시스템을 경험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